

# 기독상담자와 영성

김미경 교수

(Ph. D., 한영신학대학교)

## 국문초록

오늘날 기독상담에서 상담자의 영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독상담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치유적인 조력을 하는 효과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기독상담자는 내담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영성을 추구하며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각하고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영성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탐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한 석사과정 이상의 상담자 5명으로 기독상담실, 교회상담실, 병원, 기독교 단체 내에 있는 상담실 등에서 연구 참여자와 직접 접촉하여 자료를 제공받았다. 자료는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상담자 영성 발달에 있어서 전문자이형성인 정체감에 대해 목회상담학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다.

**중심단어** : 영성, 심층면접, 기독상담자, 영성상담, 돌봄

## I. 여는 글

현대에 들어와서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영성이란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정의하는 학자들에 따

라서 의미가 다양하며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일정한 신학적인 준거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영성’에 대한 개념은 불분명하거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sup>2)</sup>

‘영성’은 영육(body)이나 물질(material)과는 구분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는 경건(piety), 금욕주의, 신비적 체험 등이 영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영성’이라는 용어는 크리스천의 삶을 뜻하는 지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4)</sup> Long은 영성을 ‘초월과 연관된 이해나 경험의 형태’라고 정의한다.<sup>5)</sup> 즉 영성은 인간 세계의 한계를 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성춘은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귀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영성이라고 역설한다.<sup>6)</sup>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sup>7)</sup>

기독교 영성은 자기초월적 지식, 사랑, 돌봄, 결단이라는 인간적 능력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인간능력이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고에서 기독교 영성은 영성상담(spiritual counseling)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령에 힘입은 인간능력(영성)의 구체적인 실현의 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조력함에 있어서 그들의 영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 펴는 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8)</sup> 기독교상담자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수록 양질의 돌봄과 도움을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상담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성장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개발하고 있는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Dilaliala와 Hull은 돌봄과 도움이 영성의 중요 요인이라고 본다.<sup>9)</sup> 기독교

교 영성은 엄격한 자기훈련을 개발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바울이 날마다 죽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는 훈련의 삶을 살았듯이 그리스도인은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해야만 기독교 영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영성을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 1.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5년 이상의 기독교 신앙을 지닌 믿음의 생활을 한 상담자로서, 석사·박사과정에서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실에서 임상경험을 3년 이상 한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접 시간은 평균 40분 가량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재면접을 하거나 전화 혹은 이메일로 참여자에게 부탁을 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했다. 전사한 내용의 분량은 A4 용지로 5장에서 9장으로 평균 7장 가량 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1	2	3	4	5
성별	여	남	여	여	여
연령	37세	47세	38세	51세	47세
학력	석사	박사과정	석사	박사	박사
상담경력	5년	10년	4년	12년	9년
수퍼비전경험	6학기	8학기	4학기	7학기	7학기
가족의 지지도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
소진경험	없음	약간	없음	없음	약간
신앙생활기간	7년	20년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 2) 자료수집

#### (1) 심층면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참여자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보다 솔직하고 풍부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각 참여자들과의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채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였으며, 면접은 주로 참여자가 근무하거나 수련중인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에 대한 배려감으로 참여자가 직접 연구자의 연구실을 방문해 줌으로써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7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은 가능한 다양한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면접한 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함으로써 분석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도하였다. 면접은 ‘기독상담자로서 영성발달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고 자전적인 회상방법(autobiographical recall method)에 의존하여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그동안 부족한 가운데 기독상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왔지만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는 참여자들의 반응을 참조하여, 본 면접에서는 참여자들의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커다란 몇몇 범주들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생각을 촉진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고 면접 후 참여자의 분위기나 면접 과정 중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휘에 대해 메모하였다.

면접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수렴해 가도록 함으로서 생각을 정리하게 하여 가장 큰 주제인 ‘기독상담자로서 자신의 믿음, 신앙, 영성을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진행되었다.

## (2) 면접질문 범주

연구자가 면접에 사용한 질문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상담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이 상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둘째, (일반심리 상담자가 아닌) 기독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어떻게 조력하고 있습니까?

셋째, 기독상담자로서 영성발달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심층 면접한 내용을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컴퓨터에 직접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면접한 즉시 참여자의 태도나 전반적인 느낌을 간략하게 기록하였고 추가된 질문 사항들을 다음 참여자들을 위한 질문사항으로 메모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반응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사고를 하며 태도를 보이는가?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모아지고 어느 부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 현상을 보이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신중하게 분석에 임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되도록 배제함으로써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했다. 연구 자료가 소수의 제한된 사례이므로 참여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원자료에 충실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 2. 연구결과

### - 심층면접 사례 분석

#### 1)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 은혜에 대한 체험이 기록상담 장면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상담에 대한 인식이 일반상담자와는 달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달란트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 상담자로서 소명을 갖고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미정립 상태

그래서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하나님과의 경험 그런 질문은 아직 답변하기 어려우네요. (참여자 1)

#### 위로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요. (참여자 4)

나를 끊임없이 보살피 주시고 삶의 위기와 순간순간 마다 힘을 주시고 (참여자 2)

###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 혼자 큰 슬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주님이 나와 항상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 (참여자 3)

### **회복의 하나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5)

### **인내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마치 탕자 아들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참여자 2)

## **2) 내담자 조력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상담자들이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내담자가 온전함과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조력하는 자세를 기울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전에 의지하던 자신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치함으로써 내담자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참여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담자가 경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동행경험을 위해 내담자로 하여금 도와주려는 사람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상담 장면에서 재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보상담자 시절의 일방적인 지시와 교육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상담에 어떤 신학적 기반이 주어지기를 갈망하고 있기도 했다.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성서에 근거한 2차 변화의 조력자로서 즉 내담자의 외부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면의 2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도 했다.

### 하나님의 이미지, 속성을 전함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을 내담자에게 심어 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참여자 2)

### 성령의 도움을 간구

내담자를 만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상한 모습으로 오는 내담자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참여자 3)

### 기다려 줌

전에는 내담자를 보면 내가 막 먼저 끌고 나가려 하고 주도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랄까 충분히 기다려 주게 되고 그런 힘들이 주어진 것 같아요. (참여자 1)

###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

하나님은 하나하나에 다 은사가 있잖아요. 내 삶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존재의 가치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가는 게 세상이 나를 보낸 이유 있잖아요. 그거를 존재의 이유까지 아는 거죠. 그렇게 알고 내담자가 오면 그에게도 존재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려는 상담 그런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 하나님 안에서 본성 회복을 위한 조력

어... 만드신 뜻이 있잖아요. 각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는데 어떤 문제로 그 귀한 본연의 것이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참여자 5)

자기 본연의 모습, 고귀함, 귀함, 자기 안에 있는 생명력 이런 것, 이런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참여자 3)

### 변화된 인식으로 상담에 임함

기쁨도 상실했고 힘도 없고 정말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이럴 때 굉장히 마

음이 아파요. 그래서 본래 주어진 저 사람한테 많은 가능성과 이것이 있을 텐데...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상실 했겠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모습부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형상이 있을 텐데 ... 그게 어떤 잠재성 ... 생명력 ... 그걸 보죠 ... 그것이 상실된 느낌이어서 그것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담자와 함께 같이 견디면서 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 부분적으로라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지키려고 하죠. (참여자 5)

###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함

예전에는 오히려 마치 가족치료사들이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려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 과정 중에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 그게 좋잖아요? 앞길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게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데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런 걸 하려고 해요. (참여자 2)

### 주님의 도구로서의 자세 취함

저는 잠깐 이분이 필요해서 나를 쓴다 라는 ...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 내가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씌우는 그 작업을 나한테 하는 것 같은 ... 안경역할. 안경이 ... 잠깐 돋보기 쓰고 찾으면 내려놓고 가지않아요. (참여자 1)

음 내담자는 스스로 좀 헤매고 있지만 사실은 잘 할 분이다. 도와주기만 하면... 도와준다는 것은 '나는 도구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죠. (참여자 2)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도구가 아니라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도 좋고 채널이래도 좋고 이런 의식을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참여자 4)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참만남을 갖도록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일 뿐 이고. (참여자 3)

### 다가가는 상담자의 자세

적어도 보통 상담이론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가가는 상담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 2차 변화의 조력자

2차적인 변화라는 게 그 내면의 변화. 마치 허박국에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떡갈나무에 뭐가 없고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과 같은 변화 있죠. 그 2차적 변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외부에 변화가 없을 지라도 그 사람이 힘이 있어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긴 하는데. (참여자 4)

1차 변화는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왜곡된 것을 깨닫는 거. 그 다음 변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개념. 성숙. maturity. 그래서 기록 상담이 영성 상담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달음을 통해 변화하고 그 변화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도록. 그것을 지향하는 것 ... (참여자 1)

### 용서를 서두르지 않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다보면 용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 상담은 과정 신학도 얘기했고 과정, 동행 이런 얘기를 꼭 해왔는데 결국 용서도 과정이 있어야만 용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서로 가는 과정이 없는 용서는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에 대한 입장이에요. (참여자 5)

용서도 자기를 알고 충분히 자기가 받아들일 때 이걸 터득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점검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냈고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그 충만감을 느끼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상담실에는 자기가 충만하지 못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해라 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디서든지 결핍된 그거를 상담실에서 관계성에서 줘야 된다고...그게 되면 그 때 용서가 되는 거죠. (참여자 3)

그런데 저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여자 4)

### 3) 영성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들

참여자들은 상담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자신의 영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내담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호소해 올 경우 자신의 인생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 은혜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영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상담에 대한 인식이 일반상담자와는 달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달란트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통해 상담이론, 기법, 경험에 더하여 신앙이 잘 조화된 통합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 하나님께 의존

저는 정말 그 ...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원하고 구하고 또 그것을 즐기거든요. 그것은 제 상담 스타일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싶다 그랬듯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달하고 싶은 상담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면서 내가 어려움 중에 같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사랑 같은 것을 그냥 내가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거죠. (참여자 4)

####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

신학과 심리학과 영성이 합치된 상담이 과연 뭘까 ... 아직도 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헛갈려요. 기독교상담이 뭔지. 그 경계선이 뭔지 가끔 너무 헛갈려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일반상담, 심리상담, 이론상담. 뭐 이런데, 진짜 기독교상담이 뭔지, 영성이 뭔지 ... (참여자 1)

#### 자기점검

나 자신을 먼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거,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기도 하고 (참여자 1)

일단 이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동기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제일 염려되는 건 뭐냐면 상담이라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내담자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나 점검을 제일 많이 하죠. (참여자 2)

### 믿음의 담력을 표현

과거에 힘들었을 때 나를 지탱해 주고 세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담자에게 때로는 담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참여자 3)

### 치료적 인간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러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나의 영적 성숙의 과정이었죠. 나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는 편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참여자 5)

### 상담에 대한 소명감 고취

내가 상담공부와 신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싸움이 가족들의 반대도 있지만 외롭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신을 얻었어요. 내 갈 길이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참여자 5)

### 감사의 태도

내 나이로 봐서 적절할 때에 정말 내가 이걸 잘 했구나 … 나는 그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해요. (참여자 4)

### 아픔의 대상과 용서시도

성경에도 70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을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려 하고 또 꼼꼼이 생각해 보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자기 죄책감도 많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죄책감을 해소하고 나면 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시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참여자 3)

자기 속에 얽혀있는 상처나 분노 감정, 특히 원한 감정들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걸 왜곡하거든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해결된 것처럼, 또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반동형성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것이 나를 위한 영성이 아닌가 싶은데 (참여자 2)

〈표 2〉 연구결과 요약

영역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경험들	미정립 상태 위로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내담자 조력방법	하나님의 이미지, 속성을 전함 성령의 도움을 간구 기다려줌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 하나님 안에서 본성 회복을 위한 조력 변화된 인식으로 상담에 임함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함 주님의 도구로서의 자세 취함 다가가는 상담자의 자세 2차 변화의 조력자 용서를 서두르지 않음
영성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들	하나님께 의존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 자기점검 믿음의 담력을 표현 치료적 인간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 상담에 대한 소명감 고취 감사의 태도 아픔의 대상과 용서시도

### 3. 논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과연 무슨 동기로 기독교상담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며 기독교상담의 본질이 내담자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성 상담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독교상담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아울러 기독교상담과 일반심리상담의 차이 · 경계선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 상담경력이 차츰 쌓이면서 수퍼비전에서 배운 바를 그대로 적용해 보기도 했고 주로 수퍼바이저에게 배운 하나님 이미지를 끌어오는 기법을 배워 실제 상담회기에 도입 및 활용을 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상담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하다는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담자에게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하였다. 궁극적인 단계로 생활과 신앙, 상담의 일치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앙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도 치료적 인간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다. 또 한편으로 참여자의 일부는 기독교상담자로서 영성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어떻게 실제 상담 장면에서 영성을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미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숙제로 남겨두고 있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상담에서 용서의 과정이 적절히 다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성상담의 방향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자세를 바로 가질 수가 없기에, 타인의 용서에 앞서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용서가 있어야 하므로 상담자들은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지만 먼저 충분히 자기를 받아들이고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용서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자원-하나님

의 속성, 사랑과 용서, 창조의 섭리와 통치, 인간의 본성, 성경의 권위, 기도, 죄의 실재, 예배에의 참여, 공동체 삶-을 활용하게 된다.<sup>10)</sup> 기독교 유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종교적 자원들을 사용함으로써 내담자를 조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원에서 상담이론과 기법·심리치료 등의 과목 이수와 상담실습을 하며 수퍼비전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연장교육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기독교상담자가 된 동기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신앙적인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구도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에 감사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식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참사랑과 돌보심을 상담을 통해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참여자 2, 3).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하는 상담활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참여자 2, 4, 5)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 2:8).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구원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들이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어서 자양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Cobb은 기독교 전통이 전달해 주는 경험들을 목회상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성경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인들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거나 모호하게 변해 버린 경험들을 성경의 조명을 받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11)</sup>

참여자 4도 자신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고 좌절이며 끝이라고 한때 생각하기도 했으나 교회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성서의 조명을 통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걸 체험함으로써 아무리 곤경에 처한 내담자일지라도 성서의 의미를 살리면서 조심스럽게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상담 장면에서 암시적으로 항상 당신 옆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려는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조각난 경험들을 모으고 재편성하여 문체와 상황에 대한 넓은 관점,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여 변화가 가능하게 만든다. 사고와 감정의 틀이 바뀌거나, 상황을 경험한

관점이 바뀌어 질 때, 그리고 그 구체적 사실이 그 상황에 더 잘 맞는 곳에 자리매김할 때 그 전체의 의미가 바뀔 수 있게 된다<sup>12)</sup>는 말처럼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한 바를 새롭게 구조화해서 문제 행동과 감정·생각들에 새로운 해석과 바람직한 경험들을 발달·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을 대할 때 내담자의 본연의 모습, 고귀함, 내담자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역할도 영성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Ashbrook은 기독교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sup>13)</sup>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미 있는 모습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은 개인의 고통을 다루기 위하여 기독교상담자 개인의 자원과 믿음, 영성,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지식으로 내담자가 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술들을 제반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상담자는 영성을 지님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생명을 내담자에게 열어놓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점이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이다. 그러므로 내담자 및 교회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상담자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며<sup>14)</sup> 신학적/영적, 심리학적/행동적 개념들을 계획적이며 통일된 방식으로 통합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sup>15)</sup> 통합화에서 기본 과제가 상담 절차·과정 전반에 기독교적인 종교성(Christianity), 영성(spirituality)이 제공되어야 그 상담은 진정한 기독교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기독교상담자는 일반 상담자와 다른 그들만의 독특성이 요구되는데, 특히 목회적 진단을 위해서 신학적 혹은 성서적 주제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신학적 이론이나 체계를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진단에 접목하여 회복하려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치유와 보살핌의 장소이므로 '창조', '죄', '영성', '성화' 그리고 '하나님' 과 같은 신학적 용어가 중요하다. 목회적 진단 혹은 목회신학은 기독교상담에 신학적 혹은 성서적 주제나 이론들을 회복하여 심리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신학화 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

과정에서 성서적인 주제들을 제기하고 사용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기독교상담자들은 자기 속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전인적인 관계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상담에 임함으로써, 즉 인간의 삶의 수평적인 차원들-육체, 정신, 정서, 관계, 사회, 자연, 소명 등의 차원들-을 완전케 하는 전인적(holistic)인 인격완성에 가치와 궁극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격의 모든 차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갖도록 돕는 신앙적 관심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의 회복이라고 생각된다.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의 돌봄에 참여한 자들’ 이기에 인간의 연약성을 돌보는 일에 노력함으로써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상담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목회 실제(practice)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유능성을 갖추어 행동과학에서 얻은 통찰과 종교적 자원을 숙련되게 통합하여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sup>17)</sup> 또한 기독교상담자는 영성 함양을 함으로써 성령만이 인간을 압박하는 제어장치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주는 영성기독교 상담이 되어야 한다.

### Ⅲ. 달는 글

Collins는 영성을 자신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8)</sup>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영적 현상이 사람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들을 조력하는 전문 활동이다.

또한 영성이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현상으로<sup>19)</sup> 전문 조력 활동의 주체자인 기독교상담자가 먼저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내담자와 관계를 확립해 줄 수가 없다는 취지하에 본 연구는 먼저 기독교상담자의 영성을 제한된 사례이지만 점검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인 기독교상담자들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정체성이 대부분 확립되어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신앙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참 만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때는 자신에 대해 무가치감을 지닌 적도 있었으나 자기를 세상에 보낸 자가 하나님이므로 지금은 잠시 힘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을 보낸 이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참여자 4, 5). 이와 같은 변화의 능력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기독교상담자로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측면중의 하나는 ‘왜 자신이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담자를 만날 때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의 분노에 찬 질문들에 봉착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상담자라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인간에게 있어 신정론(theodicy)의 문제는 공통적인 현실인 것이다. 어떤 대답이든지 이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때로 애정보다는 잔인하게도 보인다. 기독교상담자는 인간의 곤궁한 국면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심에 대한 영성의 체험과 아울러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시간이 요구되기에 내담자는 소망을 갖고 혼자라는 고독을 상담자와 함께 견디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자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성화(sanctification)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상담자는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 성화는 곧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그리고 상담자에게 있어서는 특히 내담자를 깊이 사랑하여 성화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

력을 소유하게 되어 기독상담자로서 영성을 발현하게 된다.

### 【 참고문헌 】

- 권수영. “임상현장의 작용적 신학: 기독교상담의 방법론적 정체성.”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학회지』 7 (2004): 100-123.
- 오성춘. “영성과 목회상담.” 『한국목회상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1).
- Ashbrook, J. B. *Minding the soul: Pastoral counseling as remember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Benner, D.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
- Cobb, J. B. *Theology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7.
- Collins, K. *Soul care: deliverance and renewal through the Christian life*. Wheaton: Victor Books, 1995.
- Conn, J. W. “Toward Spirituality Maturity,” In *Exploring Christianity Spirituality*. MI: Baker Books, 2000, 356-378.
- Ewing, J. W. “Pastoral Counselo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Long, J. “Spirituality and the Idea of Transcen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Spirituality* 5(2) (2000): 147-160.
- Dilalia, L. F. & Hull, S. K. “Effect of Gender, Age and Relevant Course Work on Attitude Toward Empathy, Patient Spirituality, and Physician Wellness.” *Teaching and Learning Medicine*, 16(2) (2004): 165-170.
- Giblin, P. & Stark-Dykema, J. “Master’s level pastoral counseling train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46(4) (1992): 361-371.
- Gordon S. W. “Spirituality”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by Gordon S. Wakefiel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 Greenwald, C. A., Greer, J. M., Gillespie, C. K. & Greer, T. V. Study of the identity of

- pastoral counselors, *American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7(4) (2005): 51-69.
- John Alexandria, "What do you recent writers mean by spirituality?" *Spirituality Today*.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1974.
- \_\_\_\_\_. What is pastoral counseling?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13(11) (1997): 8-9.

### [ 후 주 ]

- 1) 현대 영성은 실천신학의 입장에서 총체적-경험적 정의, 삶의 구조변화를 지향하는 실제적 정의, 발달 이론적 정의,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해방적 정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첫째 총체적-경험적 정의를 주장하는 Holmes(1982)는 영성을 (1)관계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보편적 개방성, 및 잠재능력, (2)인간의 감각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에 의해 겪게 되는 초월적 경험, 그리고 (3)그 초월적 경험에 대한 기다림이나 신뢰 같은 고양된 의식으로서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둘째 삶의 구조변화를 지향하는 실제적 정의를 주장하는 Warren(1988)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영성을 실제적으로 지녀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삶으로 나타나는 영성을 강조한다. 셋째, 발달 이론적 정의를 주장한 Leean(1988)은 영성 이해에서 '개인적인가 혹은 집단적인가?', '거룩한 것인가 혹은 세속적인가?' 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배제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도록 하는 '관심과 의식의 확장' 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해방적 정의는 영성의 개념을 사회정의의 실현과정과 연계시켜 이해한다. 이 영성의 특징은 인종, 성별, 계층, 거주 지역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확대시켜 해석한다.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에서 이 영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 2) Iris V. Cully,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22-43;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05.
- 3) John Alexandria, "What do you recent writers mean by spirituality?" *Spirituality Today*, 257.
- 4) Gordon S. Wakefield, "Spirituality",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 Spiritu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361
- 5) Jonathan Long, "Spirituality and the Idea of Transcen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Spirituality* 5 (2000), 147.
- 6) 오성춘, "영성과 목회상담", 「한국목회상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6.
- 7) J. Wolski Conn, "Toward Spirituality Maturity 0117, In Kenneth J. Collins (ed.), *Exploring Christianity Spiritualit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356.
- 8) Klaus Issler, "Biblical Perspectives on Developmental Grace for Nurturing Children's Spirituality", In Donald Ratcliff (Ed.), *Children's Spirituality* (Oregon: Cascade Books, 2004), 54.
- 9) Lisabeth F. Dilalia & Sharon K. Hull, "Effect of Gender, Age, and Relevant Course Work on Attitude Toward Empathy, Patient Spirituality, and Physician Wellness", *Teaching and Learning Medicine* 16 (2004), 165.
- 10) What is pastoral counseling? (1997).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13 (11), 8-9.
- 11) J. B. Cobb, *Theology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23-30.
- 12) P. Watzlawick, J. Weakland, & R. Fisch,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1974), 재인용.
- 13) J. B. Ashbrook, *Minding the soul: Pastoral counseling as remember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2.
- 14) C. A. Greenwald, J. M. Greer, C. K. Gillespie, & T. V. Greer, Stud of the identity of pastoral counselors, *American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7 (4) (2005), 51-69.
- 15) P. Giblin, & J. Stark-Dykema, "Master's level pastoral counseling train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46(4) (1992), 361-371.
- 16) 권수영, "임상현장의 작용적 신학: 기독교상담의 방법론적 정체성", 「기독교상담학회지」 7 (2004), 101.
- 17) J. W. Ewing, "Pastoral counselo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재인용.
- 18) K. Collins, *Soul care: deliverance and renewal through the Christian life* (Wheaton: Victor Books, 1995), 4.
- 19) D. Benner,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 99.

**【Abstract】**

Christian Counselor and Spirituality

Mikyung Kim

(Ph. D.,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counselor's spirituality is important issue. Christian counselors have to guide a client to the omniscient God as a real counselor. Christian counselors has to be aware of which spirituality he has and which role he is playing. At the same time he should explore what kind of influence he is making on the client. The participants were 5 counselors who have received master or higher degrees in Christian counseling, and the data were obtained by directly contacting the participants at Christian counseling offices, church counseling offices, and counseling offices in hospitals and other Christian organizations. These data were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discussions wer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pastoral counseling for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development of spirituality.

key words : spirituality, in-depth interview, Christian counselor, spiritual counseling, care